

2019년 제 3차

이 사 회 회의록

❖ 일시 : 2019. 12. 27.(금) 16:30

❖ 장소 :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내 회의실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Korea Tenni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제3차 이사회 회의록

2019. 12. 27.

이범주 사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이사님께 깊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2019년도 제3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성원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이사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운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열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욱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복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혁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효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성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근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이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철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무근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 회장님이신 박정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재적이사 23명중 13명 참석으로 규약 33조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정관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회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어찌다 보니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사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협회도 많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첫 회는 하도 적자가 나서 그걸 메운다고 정신이 없었고, 작년 두 번째 이사회는 적자가 없어졌는데, 올해는 아마 2천여만 원 정도 흑자로 예상됩니다. 내년 초에 열리는 이사회 때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협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내후년도에는 5, 6천 여만원 정도의 흑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아무런 탈 없이 지나간 것은 잘 진행해주고 계신 이사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보고사항 제 1항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가 있습니다.

박정관 의장 : 회순에 따라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를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네. 배부해드린 안건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차 이사회 초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오전11시, 양평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내 회의실에

서 재적이사 23명중 14명이 참석하여 2019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안건으로는 「전차 이사회 초록」 및 「2019 서울 코리아오픈국제대회 결과」, 「2020 국제시리즈대회 개최 신청」을 원안대로 접수해 주셨으며, 심의 안건으로는 「2020 국가대표 선발 계획 확정(안) 심의」, 「규약 일부 개정(안) 심의」,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2시에 폐회하였습니다. 이상 전차 이사회 초록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정관 의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관 의장 :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보고사항 제2항 「임원 사임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본회 임원사임 보고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2,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수 부회장님께서 협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계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 이사님들을 부회장으로 모시기 위해 사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관 의장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1호를 상정하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심의안건 제1호인 「2020년도 국가대표 선발 확정(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발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4조(국가대표 선발 및 보고), 제12조(국가대표선수 선발), 제13조(선발시기), 제14조(선발기준 및 절차), 제16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에 의거 공개 선발 절차를 거친 후 본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함으로써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선수 및 지도자 선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선발은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테니스장에서 2019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남자7명, 여자2명, 쿼드4명 총 13명이 참가하여, 남자3명, 여자2명, 쿼드2명 총 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지도자 선발은 공개채용으로 4명이 응시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서 3명의 지도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정관 의장 : 이번에 변동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저번 6차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총 4명의 국가대표 지도자 응시자 중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유지곤 지도자가 감독을 맡았고, 달성군청의 정필교 지도자와 케이토토의 주득환 지도자가 코치를 맡았습니다. 올해는 대구장애인체육회의 박세덕 전임지도자가 응시하게 되어, 전문체육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정필교 달성군청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발되었고, 케이토토 주득환 코치와 박세덕 전임지도자가 국가대표 코치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이하결, 오상호, 임호원 선수가 선발되었습니다. 2020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하결 선수는 부상과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출전하지 않았고, 오상호 선수는 선발전에서 탈락하게 되어 케이토토의 이지환, 달성군청 한성봉 선수가 새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여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박주연 한인경이 선발되었습니다. 쿼드 부문에는 올해는 김규성, 김명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었는데, 2020년도 김명제 선수가 탈락하게 되어 충북장애인테니스협회의 차민형 선수와 김규성 선수가 선발되었습니다.

박정관 의장 :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부회장 :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발 인원수는 정해져서 나오는 겁니까?

이범주 사무국장 : 아닙니다, 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한 것입니다.

김태열 부회장 : 그렇다면 국가대표 선수들을 추가 적으로 선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정관 의장 : 국가대표 선수를 더 선발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까?

이범주 사무국장 : 예산의 문제라기보단 6차 전문체육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처럼,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 위주로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태열 부회장 : 국가대표 선수들을 더 선발하게 되면 선수들이 경쟁심도 가지게 되면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관 의장 : 저번 이사회 때도 나왔던 주제지만, 추가 선발로 들어온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실력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합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은 신인선수, 후보선수, 국가대표선수 사업으로 나뉘어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오상호, 이하걸 선수와 2020년도에 선발된 남녀, 쿼드 국가대표 선수들을 포함한 선수들 이외에는 실력 차이가 심하고, 신인선수 발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선발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관 의장 : 응시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한 사람을 더 선발하여 국제대회에 참가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이사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민 부회장 : 예전에 이하걸 선수의 예처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훈련 기간에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업팀 선수가 아니고선 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관 의장 :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온 선수들은 개개인이 선수가 되기 위한

각오를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용로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용로 이사 : 저도 앞서 회장님과 이사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신인선수들이 선발전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훈련을 받게 하면 되지만, 지금 탈락한 두 명의 선수들은 지금까지 국가대표 생활을 했고 실업팀으로 활동 중인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을 기존에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이번에만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에 선발전에 참여한 선수 중에 실업팀이 아닌 선수가 있나요?

이범주 사무국장 : 이번엔 박재홍 선수가 직장인 팀에서 출전하였지만, 아무래도 이전에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차이가 나다 보니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관 의장 : 우리 협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실업팀 선수가 아닌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로 이사 : 현재 박재홍 선수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범주 사무국장 : 41살의 선수입니다. 현재 세계랭킹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선수들로 되어있는 추세입니다.

정재철 이사 : 만약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선수선발기준에 저촉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선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박재홍 선수같이 직장인 선수들도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하지만 기존의 선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인선수들이나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은 선발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철 이사 :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나 투어 때문에 정해진 훈련 일수를 채우기가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정들을 조절

해서 예산을 분배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그럼 지금은 추가 선발을 하기에는 늦은겁니까?

이범주 사무국장 : 현재 사업계획안과 선발명단이 장애인체육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추가 선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역 부회장 : 그렇다면 다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관 의장 :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라고 하면 전문체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보시면, 선발 6개월 전에 공지하고 선발전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추가 선발은 이사회 의의 의견으로 선발규정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원과 협의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대부분의 이사님들은 확장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니, 절차상으로 저촉될 사항이 없다면 내후년도 국가대표 선발시 공지를 하여 추가적인 선발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국가대표 선발 확정(안 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2호를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심의안건 제2호 「임원 보선(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이번에 새로 보선된 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7페이지

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회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협회 내에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용로 이사님을 부회장으로 추대를 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 및 이사 : 없습니다.

박정관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임원 보선(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이제 준비된 안건은 다 심의되었고, 혹시 기타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부회장 : 일 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계속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금일 얘기했던 안건 중 신인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입장벽이 원인인지 신인선수 발굴이 탁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에 비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수석부회장님과 다른 임원들의 도움으로 신인선수 발굴에 긍정적인 해가 되도록 사무국장이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저도 협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국가대표선수들이 십수 년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들어올 선수들이 휠체어테니스에는 기회가 없다 라고 느끼지 않게끔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관 의장 : 저희 정재철 이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재철 이사 :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때 의결되는 사항들은 각 해당 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결정되는 내용은 내후년도나 차기 회의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회의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사회 때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회장님께서 이전 이사회 때 말씀하셨던 내년도 퓨처스대회의 개최를 위해 조율중

에 있습니다. 일부 경기도체육회들과는 협의가 되었는데 수원시와 지방 시, 군들과는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게 되었으니, 추진하게 된다면 사무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예, 그 안건은 저번 이사회 때 이후 신청을 해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경기도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 저희의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자 하는데, 내년도 퓨처스대회와 각종 시도대회 신청 관련 문제와 장애인테니스협회 자체적으로 큰 대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이환 이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이환 이사 : 제가 장애인테니스협회 이사라는 자리에 있지만 올 한해는 어영부영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신 회장님과 부회장님, 이사님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회가 된다면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순 이사 : 모두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열심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중간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근태 이사 : 올해 장애인테니스협회라는 좋은 분들이 계시는 곳에 들어오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왔지만, 아직 까지는 장애인테니스에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코리아 오픈 대회를 계기로 해서, 매체에 홍보 등을 했습니다. 아직 까지는 내부의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장애인테니스 선수들이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관 의장 : 사실 이번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열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신 이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복 이사 : 올해 모두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협회 이사로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내년 국가대표 코칭스텝 다시 구성 되었는데

데, 아시다시피 도쿄 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 이사진들이 힘을 합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혁민 이사 : 처음 협회의 디렉터로 들어오게 되어 모르는 것이 많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어설픈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신인선수 발굴사업 등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관 의장 : 다음은 멀리서 오신 변성수 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성수 이사 :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제가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홍보 부분인데, 일을 찾아서 하지 못하고 지시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회의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정관 의장 : 다음은 이용로 부회장님께서 부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소감 겸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로 부회장 : 제가 아직 많은 면에서 부족하지만 회장님과 부회장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활약하신 덕분에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선수 출신으로 이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새로 직책을 맡은 부분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테니스협회 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선수들과 소통을 하면서 신인선수 발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응원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관 의장 : 이제 가장 고생하신 정동윤 부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동윤 수석부회장 :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좋은 회장님을 모시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무서운 게 벌써 협회에서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사님들 부회장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심부를 시킬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박정관 의장 : 예, 그리고 내년 이사회 신년사업에서 다룰 사항이 있는데 이사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인선수 발굴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 했는데,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접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협회 차원에서 신인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있는 일은 대회에서 스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자 합니다. 현재 협회에서 진행 중인 CMS 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명 정도의 회원을 목표로 이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5천 원 정도의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기부금은 소득공제도 확실히 되고, 앞으로 장애인테니스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기예 이사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연말에 1000명을 목표로 하면 선수들과 장애인테니스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태열 부회장 : 예전 도로공사 사장님과 얘기를 한 부분인데 도로공사와 같은 기업 내에서 테니스장 설치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박정관 의장 : 그런 부분들이 신인선수 발굴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사님들도 정치권의 계신 분들과 협의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장애인테니스의 발전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즈음에 협회 자체적으로 어울림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얘기해 본 바 후원을 통해 약 5천만 원 확보가 된다면, 양질의 대회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10월 예산이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재철 이사 : 아시다시피 사실 휠체어테니스는 선수층이 얇다 보니, 저희 쪽에서 선수들을 모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업팀뿐만 아니라 동호회 선수들을 위해 지방에서 크고 작은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문제는 참가자 수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용로 부회장 : 저희가 서울역에 있는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휠

체어테니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법은 어떻게겠습니까?

박정관 의장 : 신인선수 발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로 부회장 : 예. 현재 국군병원이나 여러 병원에 퇴원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곳에 테니스코트를 설치하는 기획을 진행하려 합니다. 코치진이 왕래하며 젊은 친구들에게 휠체어테니스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하여 지원을 받으면 좀 더 선수 발굴이 수월해지고, 장애인테니스협회가 목표로 하는 신인선수 발굴과 휠체어테니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회장 및 이사 : 좋은 의견입니다.

박정관 의장 : 단순히 대회 상금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선수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좋은 의견입니다.

이용로 부회장 :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병원에 장기적으로 왕래하며 홍보를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관 의장 : 후원과 관련하여 후원으로 들어온 금액의 일부를 홍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규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후원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용로 부회장 : 저희 실업팀 선수들이 직접 가서 비기너들을 위한 이벤트를 계획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대회를 개최하되, 비기너들을 초대하여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용로 부회장 : 현재 지방테니스협회같은 경우는 여분의 경기용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면 비기너들이 테니스라는 매력적인 운동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박정관 의장 : 이 안건은 내년 이사회 전에 계획을 세워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

고, 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죠?

부회장 및 이사 : 예, 없습니다.

박정관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000))

2019. 12. 27.

작성자 : 사무국장 이 범 주 (인)

서 명 란					
회 장	박정관 (인)	부회장	정동욱 (인)	부회장	김태열 (인)
부회장	문경로 (인)	부회장	박상욱 (인)	부회장	이수민 (인)
이 사	김영복 (인)	이 사	김중섭 (인)	이 사	김혁민 (인)
이 사	김호순 (인)	이 사	남동수 (인)	이 사	박정훈 (인)
이 사	박창문 (인)	이 사	변성수 (인)	이 사	오희심 (인)
이 사	이근태 (인)	이 사	이동규 (인)	이 사	이용로 (인)
이 사	이이환 (인)	이 사	정이루리 (인)	이 사	정재철 (인)
이 사	조무근 (인)	이 사	한윤자 (인)		
감 사	이 송 (인)	감 사	이종윤 (인)		